

# “까치야 한번더 날아보렴”

## 장애아 아픔 그린 만화영화 완성·배포

조연현 기자

“까치가 불쌍하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만화가 이현세씨가 일반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린 100쪽짜리 만화 〈우리 친구 까치〉가 만화영화로 만들어졌다.

정신지체아인 초등학교 4학년 까치가 친구들보다 행동이 느려 따돌림을 받으면서 겪는 아픔과, 친구들이 결국 까치를 이해하고 돕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우리 친구 까치〉는 지난해 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1만1천여권이 배포된 뒤 어린 학생들한테서 큰 호응을 받았다.

울초 제작에 들어가 3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사회를 연 만화영화 〈우리 친구 까치〉는 만화를 그린 이현세씨가 직접 총감독을 맡았으며, 탤런트 채시라씨 등이 자원봉사자 성우로 참여했다. 제작비는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익사업단이 지원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친구 까치〉 비디오 테이프를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4천4백개를 먼저 나눠주기로 했으며, 앞으로 모두 1만2천개를 제작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영화를 본 김수환 추기경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무 왜곡돼 자기 마음에 장애인 기관이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만화를 기획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만화를 나눠준 학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며 “만화를 본 어린이들 대부분이 ‘집으로 까치를 데려가 보살피고 싶다’는 등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만화영화로 제작했다”고 밝혔다.